

한국수출기업의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따른 무역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Trade Insurance System through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of
Korea's Export and Import Manufacturing Companies

김창봉(Kim Chang Bong)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주저자

박세환(Park Se Hwan)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물류학과 석사졸업

권승하(Kwon Seung Ha)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물류학과 박사 교신저자

목 차

I. 서론	IV. 가설검증과 분석결과
II. 무역보험과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V. 결론 및 시사점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세계무역은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무역보험제도,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무역보험 활용, 수출성과

I. 서론

글로벌 비즈니스 거래에서 무역계약은 수출업자의 물품인도 의무, 대금을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의 의무, 물품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무역계약은 상이한 국가 간에 수출입업자들의 거래관계로 거래당사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신용위험, 거래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금의 결제를 못하는 비상위험의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우리나라는 9번째로 세계에서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무역은 2012년 이후 정체상태에 진입하였다. 신흥국 투자부진, 자원수출국의 경기침체, 주요 선진국 선거 등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및 무역지원기관에서 다각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 및 무역지원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단기 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활발해져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 무역대금 결제의 위험을 향상시킨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자원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취약하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제도의 서비스는 단순히 무역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역보험제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역서비스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해외마케팅지원, 인력 및 교육 훈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활용, 무역보험제도인 단기 및 중장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금융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수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무역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무역보험제도의 서비스 품질, 무역보험 활용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보험제도 활용 요인들과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수출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무역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과 무역대금결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무역보험과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1. 무역보험제도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제도는 무역거래 전체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무역거래의 관계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이다. 이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연대보증을 의미한다. 수출기업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물품의 제작비용을 충당하며, 수출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Zammit et al, 2009). 2016년 12월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관련된 무역지원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 <표 1>과 같다.

글로벌 시장은 언어와 상관습, 법률 제도 등 환경이 크게 다르고, 최근 구매자 위주의 세계 무역시장은 수출대금의 회수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 정보 등 보유자원과 수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체인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및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역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은 수출증가율이 낮고 수출저변이 얇아 수출이 정체되고 있으며, 100만 불 이하인 기업이 8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기에 국가별 무역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간접수출지원정책의 대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김희국, 2010).

〈표 1〉 무역지원기관 지원사업

무역지원기관	지원사업	지원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K-sure 컨설팅	현장 근무경력이 풍부한 무역보험공사의 내부전문가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수출금융 조달 등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KOTRA	해외시장조사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겟 시장 정보조사 서비스
	지사화 사업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기업의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제안하는 서비스
	신규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수출 기업화 지원
	이동 KOTRA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지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종합무역실무, 마케팅·외환 금융, 해외시장 진출 등 교육과정을 통한 무역 전문가 양성지원
	정보자료실 운영	각 국의 무역업체, 제조업체의 디렉토리 및 국내외 경제 및 무역 통계자료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전시회	세계 유명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해외전락시장의 한국 단독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출지원
	수출상담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 해외 현지에 파견하여 해외 구매자와 수출상담 지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진출 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컨설팅사,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진출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

무역보험제도는 OECD 가입 국가들과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불안요소들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는 수출업자의 수출계약 시점부터 물품인도 및 채권회수까지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에 자금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촉진, 고용창출 등 시장지향적인 무역관리와 효과적인 경제협력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공우, 2013; 최창열·함형범, 2013; 이승영·이제홍, 2010).

수출중소기업은 무역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무역보험제도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무역대금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환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여 새로

운 시장개척 및 다변화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제도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고 위험의 영향이 강한 수출보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 무역보험제도의 활용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은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 품질이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과 얼마나 잘 일치되는가에 관한 측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인식에 의해 서비스품질이 결정되는 것이다(이병호·전인오, 2012). <표 2>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보험제도 중 수출보험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송균석·남윤형·권혁찬, 2007). 선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느끼게 되는 만족도와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강병서·조철호·김상한, 2005, 송균석·남윤형·권혁찬,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체계성, 신뢰성, 공감성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체계성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둘째, 신뢰성은 무역지원기관이 수요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셋째, 공감성은 무역지원기관이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무역보험제도의 서비스품질은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활용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절차의 복잡성과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무역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박광서·안종석, 2001; 정중재, 2000; 김인호, 1999). Belanche & Casalo(2014)는 서비스 활용도 수준은 서비스 품질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기업 수준에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활용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표 2〉 무역보험제도

구분	내용
단기수출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결제기간을 보유한 수출거래 시,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 은행이 단기수출보험 수출금융을 취급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손실 발생 시 보상해주는 제도 · 비소구조건의 수출채권을 매입 후 매입대금이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중장기수출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출거래 시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자본재 수출 시 수입국 상황에 따른 위험으로 인해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중장기 수출대금 거래 시 수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조달이 가능하도록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기업이 계약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바탕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 수출기업이 선적 후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문희철·배명렬·황경연(2015)은 무역보험제도의 서비스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계성, 신뢰성, 공감성을 도출하고 수출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황경연·문희철·배명렬(2011)은 기업의 특성과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비스품질의 만족도와 활용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무역보험제도의 신뢰성, 체계성, 공감성이 향상되면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이 높아진다. 김홍렬(2011)은 서비스 품질의 요인으로 접근성, 홍보성, 편리성, 인적투자 및 물적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기업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활용의 만족도 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대체적으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접근성과 홍보성, 인적투자 및 물적 투자 등의 요인은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활용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Huszagh and Greene(1985)는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무역지원기관의 보험 인수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무역보험의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무역거래의 위험 경험에 따라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ggr and Uri(2006)은 글로벌 시장의 무역거래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제품의 수출에 관한 1996년 ~ 2002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기업이 수출신용보증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이익창출이 될 수 없지만 무역 거래의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braham and Dewit(2000)는 벨기에의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보험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 클레임, 수출국의 GDP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수출보험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수출기업은 무역지원기관의 무역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수록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진삼·김영식, 2011). 또한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무역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파악하여 무역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일, 2007).

3.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기업이 무역거래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맞닥뜨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곽봉환·강동윤, 2012). 기업이 인지한 위험의 대상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위험관리를 통해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강동윤·최광호, 2014). 무역 거래 당사자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위험관리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공급체인망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홍길종·김구태, 2012). 그러므로 기업들이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요하다(강동윤·최광호, 2014).

기업들이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신용위험(Credit risk), 비상위험(Emergency risk), 기업위험(Management risk)들과 거래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환변동 위험을 이야기 할 수 있다(오원석·박세훈, 2008; 윤상철, 2009).

먼저, 신용위험이란 수입업자(대금 지급인) 신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손실가능성을 의미한다. 수입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금지급불능(대금회수불능) 상태, 수입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수출불능, 수입업자의 재정상태 악화 및 고의적 지급지연 등의 위험이 신용위험에 해당한다.

Venkiteshwaran(2014)은 기업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수입기업의 신용등급과 자산유동성이 높은 것은 신용위험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길종·김구태(2012)는 수출기업이 수입국가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체계적인 신용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면, 중국시장의 경우 무신용장송금방

식의 수출거래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신용위험관리를 기업경영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진이복, 2014).

비상위험이란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수입국가의 수입금지 및 제한 혹은 환거래 제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위험과 수입국가의 전쟁, 내란, 폭동, 혁명 등 기타 정치적인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의미한다. 비상위험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상실 및 추가적인 비용이다. 이는 수출기업이 상품을 선적한 후 수입기업에게 인도된 후 발생하는 수출대금의 상실을 의미한다(이홍로, 2007).

환위험이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의미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다른 위험들과는 다르게 무조건 손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투기적 성격으로 인해 손실 혹은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환위험의 손실은 환노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환율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적 환노출, 회계적 환노출, 경제적 환노출로 구분되어진다(김창범, 2011; 이홍로, 2007).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하며,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주목적은 ‘기업 현금흐름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권택호·주경원, 2013). 환위험을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전담조직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위험관리전담조직은 전 기업적 측면에서 모든 부서와의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최장호, 2003).

권택호·주경원(2013)은 기업이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거래 등의 기업내부거래를 활성화해야 하며, 외부상황의 변화를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윤종인·김태황(2012)은 환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변동을 폭에 따라 저변동성, 중간변동성, 고변동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른 차별적 환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환율변동 폭이 큰 경우에는 환위험관리수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환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환위험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환손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이창민 외2, 2014).

따라서 기업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환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시점부터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무역보험제도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간의 관계

오늘날 무역은 상품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기술 무역을 포함한 복합무역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다변화된 무역거래에서 기존 위험관리기법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김용일·박광서, 2011). 수출기업은 무역대금결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역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와 관련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95 ~ 100%까지 대금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수출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처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아일랜드의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인 신용조합을 통하여 신용위험관리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위험을 부보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이 제공하고 지원하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재무 안전성을 보장받는다(Hannafin and Mckillop, 2007). 또한 기업들이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 재무적 위험의 완전한 헤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위험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Freeman, Cox and Wright, 2006).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수요는 무역거래와 기업의 위험인식 수준에 의존한다. 무역거래가 증가할수록 위험인식에 대한 기업의 변화가 없다하더라도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며, 무역거래규모에 변화가 없다하더라도 위험이 감소한다면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한다(김희국, 2010).

이희숙(2011)은 수출기업의 내부적 환경요인, 외부적 환경요인과 수출대금의 결제위험관리 및 위험관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이 결제위험관리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위험관리 성과가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용일·박광서(2011)는 무역형태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위험을 기준에 따라 분류 및 정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새로운 수단으로 청구보증제도 및 약정 손해배상금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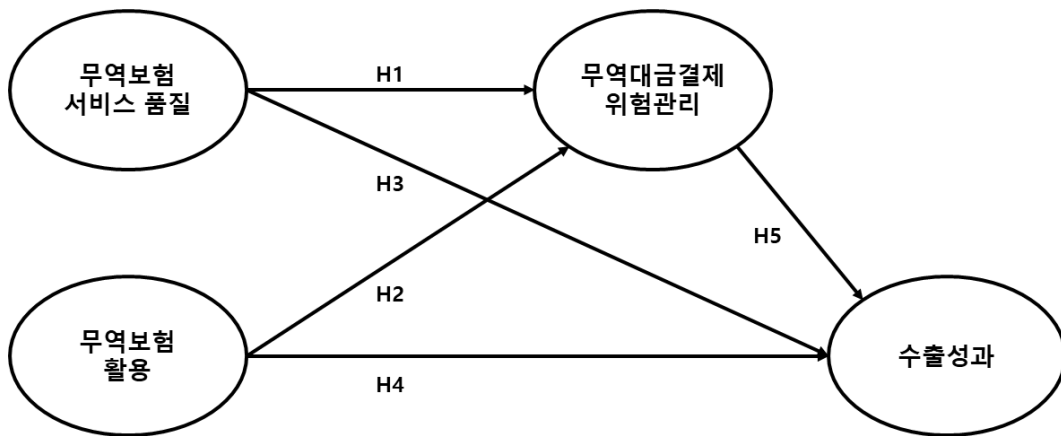
이제현(2000)의 경우 중소기업이 결제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선택하는데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규명하고, 기업 간 수출거래가 짧을수록, 무역보험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무역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 대리인이론(agency theory)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 서비스품질과 무역보험 활용이 무역대금결제위험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에 신뢰성, 체계성, 공감성을 포함하였고, 무역보험제도 활용요인에 해외마케팅 지원, 인력 및 훈련지원, 정보제공을 포함하였고,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수출성과 등을 포함하여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요인에 체계성 요인의 세부 측정항목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처리가 가능(체계성 1),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체계성 2), 위치 및 시설의 접근이 편리(체계성 3), 콜 센터 등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체계성 4) 등 네 가지 아이템을 포함하였고, 신뢰성 요인의 세부 측정항목으로는 담당직원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신뢰성 1), 고객이 요청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신뢰성 2), 서비스가 변경될 시 충분한 공지를(신뢰성 3)

성 3),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신뢰성 4) 등의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공감성 요인의 세부 측정항목으로 서비스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공감성 1), 고객을 고려한 업무의 유연성(공감성 2), 담당직원의 전문용어 설명 능력(공감성 3), 고객응대를 우선시하는 정도(공감성 4), 고객의 기대에 맞는 서비스 제공(공감성 5)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무역보험 활용 요인의 해외마케팅 지원요인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으로 글로벌 역량 진단 사업(해외마케팅 1), 이동 KOTRA(해외마케팅 2),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해외마케팅 3), 지사화 사업(해외마케팅 4) 등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고, 인력 및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으로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교육훈련 1), KOTRA 아카데미 운영(교육훈련 2), 해외고급 인력 도입(교육훈련 3), 글로벌 인재 발굴사업(교육훈련 4) 등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고, 정보제공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으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정보제공 1), 국제동향 제공 서비스(정보제공 2), 해외시장조사 대행업무 서비스(정보제공 3), 무역자료실 운영 서비스(정보제공 4) 등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으로는 간접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위험관리 1), 잠재적인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매뉴얼 보유(위험관리 2), 지역별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위험관리 3), 계약 체결 시 면책 내용에 대한 인지(위험관리 4), 위험관리를 위한 동일한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위험관리 5)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성과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으로는 수출거래 문의 횟수 증가(성과 1), 수출거래 제의 횟수 증가(성과 2), 수출거래 체결 횟수 증가(성과 3), 수출성장률의 증가(성과 4)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측정 이전에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변수를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인 조작적 정의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의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	변 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처리가 가능 •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 • 위치 및 시설의 접근이 편리 • 콜 센터 등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 	배명렬(2011), 김정포(2011), 송균석 외2(2007)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직원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 • 고객이 요청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 서비스가 변경될 시 충분한 공지 •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 	
	공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 고객을 고려한 업무의 유연성 • 담당직원의 전문용어 설명 능력 • 고객응대를 우선시하는 정도 • 고객의 기대에 맞는 서비스 제공 	
무역보험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 이동 KOTRA •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 지사화 사업 	박영호(2015), 전병영(2015), 김은영(2011), 오현정(2009), 김영일(2008)
	인력 및 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 KOTRA 아카데미 운영 • 해외고급인력 도입 • 글로벌 인재 발굴사업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국제동향 제공 서비스 • 해외시장조사 대행업무 서비스 • 무역자료실 운영 서비스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잠재적인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매뉴얼 보유 • 지역별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 • 계약 체결 시 면책 내용에 대한 인지 • 위험관리를 위한 동일한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 	김창봉, 박영연(2015), 이희숙(2011), 이홍로(2007)
수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거래 문의 횟수 증가 • 수출거래 제의 횟수 증가 • 수출거래 체결 횟수 증가 • 수출성장률의 증가 	전병영(2015), 오현정(2009), 정재승(2007)

3. 연구가설의 설정

1) 무역보험제도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간의 관계

기업운영에 있어 무역대금결제의 위험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무역보험이다(라공우, 2012).

오늘날에는 복합무역의 형태로 발전하여 다변화된 무역거래에서는 복잡한 종류의 위험이 등장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용일·박광서, 2011). 수출기업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요인과 수출대금의 결제위험관리 및 위험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결제위험관리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위험관리 성과가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됨을 제시하였다(이희숙,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보험제도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무역보험제도와 수출성과간의 관계

무역보험제도와 수출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들은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위험에 관한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자들은 무역보험의 자체만으로는 수출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무역보험제도 활용이 수출성과가 향상된다는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수출신용 보증제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창출되는 이익은 없지만, 무역구조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Egger and Url, 2006).

기업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수입기업의 신용등급과 자산유동성이 높은 것은 신용위험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하며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기업의 역량을 통해 위험관리가 수월하고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Venkiteshwaran, 2014).

H3: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무역보험 활용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와 수출성과간의 관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대금결제위험에 대한 위험관리를 할 때 외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역보험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는 기업들의 수출성과가 높았다. 무역지원기관 역할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역보험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성과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희국,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대금결제위험관리와 수출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5: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는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조사방법

1)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및 활용과 무역대금결제위험 및 수출성과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ilot study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을 수정하여 각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표본이 되는 설문조사 기업의 명단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은 한국무역보험 공사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확보된 명단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수출중소기업명, 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등이 기재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위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된 설문을 주로 e-Mail과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모집단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 300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87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0개 수출중소기업의 설문이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2) 통계분석기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무역보험 활용, 무역결제 위험관리, 수출성과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 SEM)을 활용하여 도출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 분석을 바탕으로 잠재요인 간의 공통분산을 계산하여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이유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경로모형에 있는 복수개의 회귀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유용하고, 선행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도출한 잠재변수의 측정문항의 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검증은 연구가설 채택 및 기각은 유의수준 95%, AMOS 21.0과 SPSS 23.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IV. 가설검증과 분석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의 체계성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4, 신뢰성 요인의 cronbach's alpha = .879, 공감성 요인의 cronbach's alpha = .942, 무역보험 활용의 해외마케팅 지원 요인의 cronbach's alpha = .924, 교육 및 훈련 요인의 cronbach's alpha = .915, 정보제공 요인의 cronbach's alpha = .875,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요인의 cronbach's alpha = .892, 수출성과 요인의 신뢰계수는 .957로 나타나 모두 .8 - 1.0 사이에 있어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문항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잠재요인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측정문항으로 얻어진 값을 사용한다. 이는 측정문항이 잠재요인을 설명하는 정도와 개념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4〉 신뢰성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변수	비표준화 추정계수	표준 오차	C.R.	SMC	요인 부하량	AVE (C.R.)	cronbach's alpha(α)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체계성1	1.000			0.349	0.591	.628 (.862)	0.864	
	체계성2	1.167	0.238	4.910	0.469	0.685			
	체계성3	1.618	0.278	5.813	0.806	0.898			
	체계성4	1.671	0.285	5.866	0.846	0.92			
	신뢰성1	1.000			0.755	0.869	.659 (885)	0.879	
	신뢰성2	1.077	0.105	10.26	0.756	0.869			
	신뢰성3	0.812	0.113	7.159	0.484	0.696			
	신뢰성4	0.852	0.096	8.881	0.64	0.8			
	무역보험 활용	공감성1	1.000			0.648	0.805	.761 (941)	0.942
		공감성2	1.009	0.084	11.95	0.644	0.803		
		공감성3	1.299	0.134	9.691	0.801	0.895		
		공감성4	1.315	0.133	9.907	0.824	0.908		
공감성5		1.234	0.118	10.472	0.886	0.941			
마케팅4		1.000			0.678	0.823	.754 (.924)		
마케팅3	1.154	0.117	9.887	0.807	0.899				
마케팅2	1.123	0.116	9.719	0.789	0.888				
마케팅1	1.128	0.122	9.278	0.742	0.861				
무역보험 위험관리	훈련4	1.000			0.848	0.921	.709 (906)	0.915	
	훈련3	0.919	0.076	12.166	0.84	0.917			
	훈련2	0.784	0.098	7.966	0.524	0.724			
	훈련1	0.779	0.084	9.293	0.622	0.789			
	정보제공4	1.000			0.691	0.831	.653 (.881)	0.875	
	정보제공3	1.071	0.108	9.9	0.855	0.925			
	정보제공2	1.029	0.121	8.474	0.659	0.812			
	정보제공1	0.872	0.143	6.101	0.406	0.638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위험1	1.000			0.63	0.794	.625 (.893)	0.892	
	위험2	1.064	0.142	7.502	0.631	0.795			
	위험3	1.060	0.137	7.719	0.662	0.814			
	위험4	1.121	0.146	7.654	0.653	0.808			
	위험5	0.936	0.136	6.875	0.546	0.739			
수출성과	성과1	1.000			0.92	0.959	.855 (959)	0.957	
	성과2	1.032	0.043	24.116	0.963	0.981			
	성과3	1.051	0.052	20.186	0.909	0.953			
	성과4	0.888	0.083	10.715	0.631	0.794			
모델 적합도	$\chi^2 = 814.686$ (df = 512, p=.000), GFI = .665, NFI = .736, IFI = .883, TLI = .869, CFI = .880								

먼저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chi^2 = 814.686$ (df = 512, p = .000)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기초적합지수(GFI)는 .665, 표준적합지수(NFI)는 .736, 증분적합지수(IFI)는 .883, 터커-루이스지수(TLI)는 .869, 비교적합지수(CFI)는 .880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 수준은 1에 근접한 값으로 증분적합지수는 .85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잠

재요인을 측정 한 34개 측정문항의 요인 부하량인 표준화 계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 값을 활용하여 계산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5 이상, 개념신뢰도(C.R.) 값이 .7 이상으로 권고 기준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Hair et al., 1995).

<표 5> 상관분석 결과

	공감성	신뢰성	체계성	마케팅 지원	교육훈련	정보제공	무역결제 위험관리	수출성과
공감성	(.628)							
신뢰성	.844**	(.659)						
체계성	.578**	.588**	(.761)					
마케팅 지원	.089	.070	.049	(.754)				
교육훈련	.285*	.223*	.180	.460**	(.709)			
정보제공	.345**	.349**	.420**	.444**	.351**	(.653)		
무역결제 위험관리	.289**	.290**	.279*	.322**	.125	.354**	(.625)	
수출성과	.509**	.480**	.400**	.277*	.303**	.204	.521**	(.855)

1)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2) () 안의 값은 AVE 값임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 5>와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의 측정문항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및 무역보험 활용 요인들과 무역결제 위험관리 요인들 간의 관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6>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모형의 GFI(기초적합지수) = .665, NFI(표준적합지수) = .736, IFI(증분적합지수) = .883, TLI(비표준적합지수) = .869, CFI(비교적합지수) = .880로 적합도 척도가 연구단위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 제도와 무역결제 위험관리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역

보험 서비스품질은 무역결제 위험관리에 유의한 양(+)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과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결제 위험관리에 유의한 양(+)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무역결제 위험관리에 유의($\mu = 0.213, t = 1.689, p = .091$)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결제 위험관리에 유의($\beta = 0.395, t = 2.54, p = .011$)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고, 가설2는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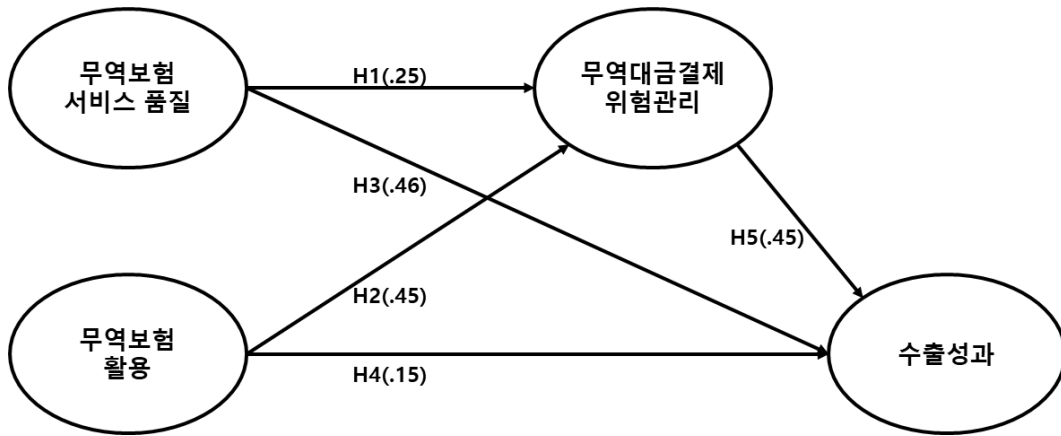
<표 6> 연구변수 간 인과관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경로	경로계수 (Estimate)	표준오차 (S.E.)	t값 (C.R.)	P값	가설
H1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0.256	0.151	1.689	0.091	기각
H2	무역보험 활용 →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0.456	0.179	2.54	0.011	채택
H3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 수출성과	0.464	0.142	3.263	0.001	채택
H4	무역보험 활용 → 수출성과	0.150	0.161	0.932	0.352	기각
H5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 수출성과	0.456	0.133	3.438	***	채택
모델 적합도	$\chi^2 = 814.686$ (df = 512, p=.000), GFI = .665, NFI = .736, IFI = .883, TLI = .869, CFI = .880					

*** P < 0.01, ** P < 0.05, * P < 0.10

다음으로, 무역보험 제도와 수출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³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과 “무역보험 활용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⁴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유의($\mu = 0.347, t = 3.263, p = .001$)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보험 활용은 수출성과에 유의($\beta = 0.116, t = 0.932, p = .352$)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와 수출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역결제 위험관리는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⁵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5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무역결제 위험관리는 수출성과에 유의($\beta = 0.408, t = 3.438, p = .000$)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는 채택되었다.



[그림 2] 요인간의 인과관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무역보험제도과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역보험 서비스품질 및 활용과 무역결제 위험관리 간의 관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이 개선될수록 수출성과가 향상되었다. 이는 무역보험이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인력 및 해외마케팅 지원, 교육훈련, 자금지원 등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수록 기업의 수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까지 보험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꾸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수출의 성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보험을 활용은 수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무역보험의 서비스 활용이 수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무역결제 위험관리가 강화될수록 수출성과가 향상되었다. 이는 무역보험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역보험 활용 시 대금 회수 및 자금의 유동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수출중소기업이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이 감소하여 수출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체제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인 무역보험 활용을 통해 국가 간의 거래에서 수출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업의 역량 및 특성과 수출보험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국가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무역결제 위험에 대하여 일원화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자체적인 수출위험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을 통한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향상 및 수출성과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이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수출중소기업들의 수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유관기관들의 서비스품질이 고객인 기업에게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무역보험 서비스의 인식이 부족하여 활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출위험을 관리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보험을 활용하여 무역결제에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결제대금 미회수 및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를 위해서 무역보험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동윤·최광호, “중소수출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무역보험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5권 제2호, 2014, pp.111-130.
- 강병서·조철호·김상한, “병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소 병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제27권 제1호, 2005, pp.57-87.
- 곽봉환·강동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경영위험 관리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0권 제2호, 2012, pp.101-108.
- 권택호·주경원, “한국기업의 환노출 특성변화와 환위험 관리방안”, 「국제경영리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제17권 제1호, 2013, pp.91-114.
- 김영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정책 활용실태와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용일·박광서,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6권 제1호, 2011, pp.325-347.
- 김인호, “중소제조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와 방향”, 「복지행정연구」,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제13권 제0호, 1999, pp.105-136.
- 김진삼·김영식,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과 수출성과의 실증분석”,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2권 제1호, 2011, pp.351-375.
- 김창범,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제3호, 2011, pp.77-95.
- 김희국,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출신용보험”,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1권 제1호, 2010, pp.21-38.
- 김홍렬, “전시회 참가목적, 서비스품질 인식, 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 참가업체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제40권 제0호, 2011, pp.168-170.
- 라공우,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발전방안 연구 : 재판매보험과 환변동보험운용 실태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7권 제1호, 2012, pp.335-356.
- 라공우, “무역보험의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5권 제1호, 2013, pp.259-283.
- 문희철·배명렬·황경연, “무역지원기관 서비스품질이 수도권 및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7권 제1호, 2015, pp.89-114.
- 박광서·안종석,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6권 제1호, 2001, pp.149-167.
- 송균석·남윤형·권혁찬, “중소기업지원정책 품질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분석: 서브퀄(SERVQUAL) 요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제29권 제2호, 2007, pp.271-293.
- 오원석·박세훈, “국제대금결제에서의 신용위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국제팩토링·포페이팅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9권 제0호, 2008, pp.143-175.
-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0권 제1호, 2009, pp.47-73.
- 이병호·진인오, “서비스품질이 기업성과, 고객만족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1호, 2012, pp.275-298.
- 이승영·이제홍, “무역거래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수출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1권 제1호, 2010, pp.39-58.

- 이제현,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창민·강형구·김동균, “환율변동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통상학회지」, 한국무역통상학회, 제14권 제2호, 2014, pp.3-34.
- 이흥로, “한국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희숙,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정중재, “충북지역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방안”, 「산업과경영」,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제12권 제2호, 2000, pp.137-160.
- 진이복, “중국에 진출한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신용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클레임과 상사중재 및 ADR」, 두남, 2003.
- 최창열·함형범,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한중 수출기업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5권 제4호, 2013, pp.367-387.
- 홍길중·김구태,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3권 제1호, 2012, pp.175-192.
- 황경연·문희철·배명렬,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과 기업특성이 수출기업의 무역지원기관 서비스 만족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제3호, 2011, pp.275-298.
- Abraham, F. and G. Dewit., “Export Promotion Via Official Export Insurance,” *Open Economics Review*, Vol.11, 2000.
- Belanche, D., Casalo, L. V., Flavián, C., and Schepers, J., “Trust transfer in the continued usage of public e-services,” *Information & Management*, Vol.51 No.6, 2014.
- Egger, P. and Url T., “Public Export Credit Guarantees and Foreign Trade Structure: Evidence from Austria,” *The World Economy*, Vol.29 No.4, 2006.
- Freeman, M. C., P. R. Cox and B. Wright., “Credit risk management The use of credit derivatives by non-financial corporations,” *Managerial finance*, Vol.32 No.9, 2006.
- Hannafin, K. M. G. and D. G. McKillop., “Deposit insurance and credit union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and Compliance*, Vol.15 No.1, 2007.

-
- Huszahg, S. M. and M. R. Greene., “How Exporters View Credit Risk and FCIA Insurance_The Georgia Experie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2 No.1, 1985.
- Venkiteshwaran V., “Do asset sales affect firm credit risk - evidence from credit rating assignments,” *Managerial Finance*, Vol.40 No.9, 2014.
- Zammit, B., D. G. Ross and D. Wood., “Perceptions of export credit insurance value: Australian evid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1 No.2,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Trade Insurance System through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of Korea's Export and Import Manufacturing Companies

Kim Chang Bong* · Park Se Hwan** · Kwon Seung Ha***

World trade has entered a stagnant state, protection trade measures are spread due to delayed economic recovery in developed countries, sluggish investment in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economic recession in resource exporting countries, and geopolitical and political uncertainties along with the election period in the US and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u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our country with a focus on ex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grow, efforts for having various markets are necessary. The importance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 which can support the risk management of enterprises, is emphasized by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SME exporters have a risk management level and a lack of corporate capacity to enter the global market. This study was surveyed with 87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ie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relationship how service quality of trade insurance and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impact o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and export performance.

The research hypothesis and model was derived from the basis of existing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Service Quality of Trade Insurance showed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Secondly,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showed positive (+) effect on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Thirdly,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showed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information by empirically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and export performance through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This study contributed to academic by examining the research o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insurance and also practically suggested the direction how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y is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trade insurance.

Key Words : Trade Insurance System,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Service Quality,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Export Performance

* Professor, Colla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Main Author

** Mast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Chung-Ang University, Co-Author

*** Ph.D, Department of Trade,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